

이랜드 5000억 개발사업 ‘좌초’ 위기

2019년 첫 삽… 2024년 공사 중단 후 재개 약속 불이행
도, 승인 취소 통보… “공유지 11만㎡ 원상복구 불가피”
내달 청문에서 소명 못하면 에일복합단지 사실상 무산

국내 대기업인 이랜드그룹이 제주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5000억원 규모 관광개발사업이 무산 수순을 밟는다. 이랜드 측이 공사 재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지난 11일 주식회사 이랜드테마파크제주에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랜드테마파크제주는 대기업 이랜드그룹이 2012년 11월 설립한 부동산개발회사로 해당 단지 시행사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어 이듬해 첫 삽을 떴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이랜드 측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지난 2023년 심의를 거쳐 개발 기간을 5년 더 연장 받았지만 이듬해 8월 갑자기 공사를 1년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부지 평탄화와 저류지,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 시설 조성과 콘도 공사

청문은 내달 열일 예정으로 사업자 측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납득할만 소명을 하지 못하면 개발허가 취소가 확정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되면 기존 계획대로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고 그동안 거친 각종 인허가의 효력도 상실한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58만7726㎡ 부지에 이랜드 측이 4934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휴양콘도미니엄과 호텔, 한옥리조트 등 579실 규모 숙박시설 및 테마공원, 케이팝 공연장, 한국문화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
를 위해 비축도지(공유지)를 내놓
고 투자자를 모집한 공모 방식 개
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



청띠나비의 식사시간 19일 서귀포시 표

멈춰섰다. 당시 이랜드 측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측은 지난해 8월 도가 허용한 공사 중단 기간이 만료됐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랜드 측은 이번엔 올해 8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2차 시한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번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도는 2차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재개할 기미가 없자 지난달 말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랜드 측은 또다시 공사 중단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자 더 이상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보고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심의위와 함께 특별점검을 진행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가 확정되면 이랜드 측은 그동안 개발한 공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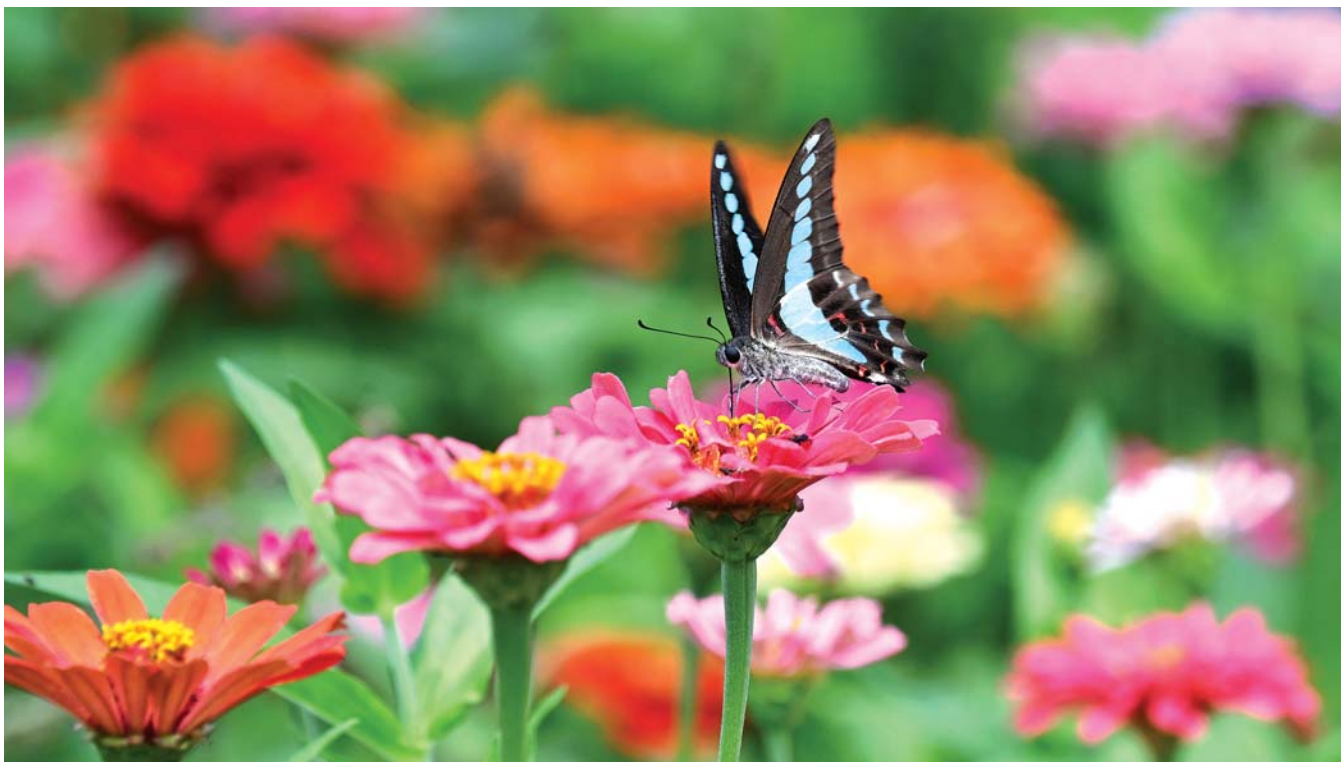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가 청문회에서 기사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테마파크제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기업으로부터 430여억원을 차입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 조달이 이뤄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계속 지키지 못한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더 이상 공사 중단 연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랜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 용도로 활용된 공유지는 여전히 소유로 남아 있다. 도가 '떡튀' 논란을 의식해 공정률 70% 이상이어야 공유지를 매각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청띠나비의 식사시간 19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공한지에 활짝 핀 백일홍에 청띠나비가 찾아와 꿀을 따먹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산 내 불법행위 드론 띄워 막는다... 3면 / 업체에 차량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5면

알림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톡톡 튀는 교육특강

32

탄

한라일보사는 제주도내 학생들의 인생 나침반이 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열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멘토를 초청, 교육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 대표 미래학자로 꼽히는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 무엇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제 목	강 사 명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 무엇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가	서용석 카이스트 문화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일 시 : 8월 25일 (화) 오후 1시 40분

▶ 장 소 : 동녘도서관

▶ 대 상 : 세화중학교 1~3학년

▶ 주 최 : 한라일보 / JDC

한라일보 JDC

비 그친 제주, 다시 ‘폭염’

“당분간 낮 최고 33℃”
열대야 40일째 이어져
19일 도 전역 폭염특보
오늘 곳에 따라 비 예보

비가 그친 제주에 다시 30℃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왔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주요 지점 일 최고기온은 구좌 31.5℃, 남원 30.4℃, 한림 31.0℃, 성산수산 30.5℃ 등이다. 체감온도도 구좌 33℃, 남원 32.7℃, 한림 32.6℃, 성산수산 32.4℃ 등 제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32℃ 안팎으로 올랐다.

현재 제주시 북부·서부와 서귀포시 남부·동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시 동부에도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진 상태다.

20일 이른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10~40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

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제주지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밤에도 더위는 계속되겠다.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북부·서부와 서귀포시 남부·동부에는 밤 최저기온이 27℃ 안팎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도 25℃ 이상으로 유지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25℃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40일째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별 다섯 개(★★★★★) 단일 체계 운영**
→ 평가점수 85점 이상

✓ **지정 대상 확대**
일반음식점 / 후계음식점 / 제과점
위탁급식영양 / 집단급식소

✿ **식품안전업소는 현관, 배달앱, 포털검색, 제주시 누리집 및 SG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 다섯 개면 안심!

식품안전업소 & 식품안전구역

안심하고 찾는 음식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외식문화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 가능



✓ **지정업소 혜택**

- 지정서 · 현판 제공
- 배달앱 · 포털에 지정 정보 표시
- 출입 · 검사 · 수거 면제
- 상수도 요금 감면 또는 위생용품 지원
-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대

**식품안전업소가 모이면,
식품안전구역이 됩니다.**

**안전한 먹거리, 신뢰받는 외식문화!
제주시가 함께합니다.**

jeju 제주시